

중도일보

1951년 창간

中都日報

joongdo.co.kr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호우 대비 총력 대응

오현민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5-06-20 14:44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청양군 인양배수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 강화와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지역본부는 도내 15개 시군에 저수지 232개소, 배수장 226개소, 용배수로 1만 6612km 등 주요 농업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 2023~2024년 수해 피해가 발생한 펌프 및 제진기 재해복구를 완료해 농경지 침수피해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저수지 사전방류시설을 통한 방류로 수위관리에 나서며,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비상상황시 마을주민 대피 안내 등 협조체계를 수립했다.

현재 충남지역본부를 비롯해 각 지사는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가동 중이며, 지사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상황 전파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재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3년 연속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금강변 주변 시설하우스가 밀집된 논산, 부여 등 지역의 경우 배수장 가동, 배수문 조작 등 침수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취약시설 주변 출입통제, 안전 펜스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수 충남지역본부장은"이번 장마철에 그 무엇보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선제적인 시설 점검과 방류 관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